

2010년 이주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씨 부부

Love 광주 Love 뮤직 Love 나눔

6·25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인 1954년. 옛된 모습의 12살 소년 한동일은 여의도 공원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제5공군 사령관 앤더슨 중장의 후원으로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한 그는 16세 때 뉴욕필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관련기사 12면>
한국인 최초로 국제 피아노 콩쿠르(1965년 레버트릿)에서 우승하고 케네디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공연하는 등 이름을 날린 그는 교육자로, 연주자로 지난 5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2005년 한국땅을 밟았다. 귀국 후 서울에서 생활했던 피



리는 듀오콘서트다. 부부가 사랑하는 음악가 슈베르트의 곡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한 이번 음악회는 광주일보가 후원하며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인다. “이제 광주가 정말 제 집이에요. 큰 무대에는 별 미련이 없습니다. 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는 ‘토크콘서트’도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한씨 부부는 사직공원을 산책하고, 담양, 팔각마을 등 아름다운 남도의 곳곳을 여행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공연문의 010-3642-16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내달 1일 문예회관에서

소아암 돕기 콘서트

광주일보 후원

아니스트 한동일(71)씨가 광주에 동지를 불었다. 24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피아니스트 이혜련(53)씨와 기자 일행을 맞은 한씨는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이고, 이제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했다. 함흥 출신인 한씨 부부가 아무런 연고가 없던 광주에 정착한 데는 피아니스트 정은순(전 전남대학교수)씨 등 지인들과의 인연이 큰 역할을 했다. 또 호남신학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자주 오갔던 양림동의 풍경도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2010년 광주 정착 후, 조용히 지내왔던 한씨 부부는 행복한 음악 바이러스를 퍼트리기 위해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그 첫걸음이 다음달 1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열린 시작한다. /오영록기자 kroh@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어등산 강제수용 주민들 “땅 돌려달라”

시민공간 조성 약속 어기고 골프장 개장
토지환매 訴·영업정지가처분신청 나서
광산구의회 “조사특위 구성…법적 대응”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24일 오후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져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세워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어등산컨트리클럽(이하 어등산 골프장)’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 당시 ‘공약개발’이라는 명분에 밀려 개인 땅을 사실상 빼앗겼던(토지수용) 지역민들이 토지환매(還買)소송과 골프장 영업정지가처분신청 등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해당 지역민들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유원지)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개인기업의 ‘돈벌이 수단’인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구의원들도 조만간 ‘어등산 골프장 조사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검토중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은 24일 “어등산 골프장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나쁜 행정사례인 만큼 빠르면 이달내로 의회내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당시 공약사업의 논리에 밀려 개인토지를 광주시에 내놓은 294명과 함께 ▲토지수용 등으로 뺏긴 토지 환매 소송 ▲골프장영업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박 의원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공약적 성격이 강한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이 당초 목적이며, 골프장은 수익창출이 우선인 민간투자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끼(부대)사업이었다”며 “주객이 뒤바뀐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광산지역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98년 설립돼 고재유 전 광주시장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고문으로 있는 광산시민연대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골프장 단독 개장을 수용한 강운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영모 대표는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된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 3차발사...우뚝 선 나로호

오늘 최종 리허설

우주의 문을 열게 될 나로호가 24일 고흥 하늘을 향해 우뚝 섰다.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이날 나로호는 발사대로 옮겨졌고, 발사를 위해 수직으로 세워졌다. <관련기사 3면>
나로호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을 떠나 1시간 10여분만에 발사대로 이송됐

다. 오후 2시50분께는 케이클 마스트 연결을 통해 나로호와 발사대시스템 간의 가스·전기 연결도 마무리됐다. 이어 오후 5시20분께 기립을 돕는 장치인 이렉터 도움을 받아 하늘을 향해 세워졌고, 최종점검과 리허설을 거쳐 역사적인 비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최종 발사 리허설을 한 뒤 오후 9시 비행위원회를 열어 예정 시각인 26일 오후 3

시30분부터 7시 사이에 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발사 예정시간에 나로호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한편 발사 당일에는 로켓 연료인 케로신(항공 등유)과 액체산소를 주입하게 된다. 로켓을 지지하던 기립장치 등을 떼어내면 모든 발사 준비는 끝난다. 카운트다운은 발사 15분 전 시작한다. /오영록기자 kroh@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호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미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는 더 좋은 대답, 여민에센스

Sulwhasoo